

돼지고기 수출과 돼지콜레라



김 봉 환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우리나라 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지도 벌써 50여년이 지났다. 돼지 돌림 병이 가을철에 지방의 장터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근 1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돼지콜레라가 주로 늦 가을철에 유행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돼지 돌림병으로만 알려졌던 옛날에는 이 병의 실체는 물론, 어떻게 발생하고 유행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돌림병이 돌 때에는 장터에서 돼지의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의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어쩌면 원시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한 두 마리의 돼지를 별탈없이 키워왔었고 가용의 큰 몫을 훌륭히 감당하였던게 사실이다. 뜨물(?) 양돈시대에는 한 두 마리의 돼지를 키우다보니 서로 격리된 상태라서 질병이 크게 문제될게 없었다. 그러나 양돈의 규모나 형태가 산업화됨에 따라 옛적에는 문제가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질병으로 인한 손실도 자연 크게 되었다. 그동안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 돼지콜레라의 예방 및 방역이 미흡하여 현재까지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 콜레라는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OIE)에서는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병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돼지 및 돼지고기는 비발생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동물 위생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이 1999년까지 이 병을 박멸하겠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 일본 돼지고기의 수출이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돼지 콜레라를 2000년까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 양돈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의 하나이다.

다행이도 지난해에 가축방역당국과 수의학계, 축산업계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돼지 콜레라를 위시한 주요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을 성안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이 수립되어 199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근절대책의 수립이 없었더라면 대만의 구제역 사태 및 네델란드,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지에서 창궐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 사태 때문에 질병 발생국가에서 비발생국가로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돈육 및 돈육가공품까지 전면 수출중단이 되는 사건을 보고 크게 당황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예측 못한 당국 및 관련 학계에 대한 비난은 대단했으리라 짐작된다. 우리나라 가축방역사의 큰 획을 그은 해가 1996년이며 이를 계기로 가축전염병 방역이 축산업을 살리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축산인은 물론 관련당국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제 수역사무국에서는 축산 총 생산량중 20% 정도를 매년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양돈 총 생산액 1조 4,066억원중('95년말 현재) 20%인 2,810여억원의 피해를 연간 감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돼지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등의 돼지 설사병, 홍막페렴을 위시한 각종 호흡기질병,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 호흡기 생식기질병(PRRS)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건국 이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돼지 질병 중 어느 하나 시원하게 근절된 것이 없이 계속 피해를 감수하면서 새로 침입하는 신종 질병(예:오제스키병, 홍막페렴, 돼지 호흡기 생식기질병, 유행성 설사 등)의 피해까지 깊어지고 양돈을 하는 셈이 되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돼지 콜레라 발생 국가로부터 돈육의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제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시한 돼지고기 및 내장의 수입 위생조건인 주요내용은 이미 널리 홍보된 바와같이 "돼지콜레라 지역 비발생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①돼지사육농장 반경 2km이내에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이 없어야 하고, 선적전 40일 이상 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②사육농장의 모든 돼지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명 또는 백신 미실시 청정농장 증명이 있어야 하며, ③도축전 40일 이상 반경 2km이내에 돼지 콜레라 발생이 없는 지역의 수출작업장에서 도축된 것이어야 하며, ④사육농장은 선적전 40일 이내에 돼지 콜레라 감염지역에서 돼지입식 금지 등의 내용이다.

일본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1999년말까지 돼지 콜레라 박멸사업"을 성공한다면 그 다음 조치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게 돼지 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의 돈육수입의 전면금지 조치라고 본다. 이와같이 돼지 콜레라가 돈육 수출의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나 양돈업계가 지향하는 수출주도형 양돈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과감히 제거해야만 가능해진다. 품질이 우수한 위생적인 돈육이 아니고서는 수출은 커녕 내수용으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입장이 못된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덴마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돼지콜레라가 없는 나라들이다. 대만도 이미 돼지 콜레라 박멸사업을 1999년 말까지 일본이 지향하는 목표 년도와 맞추어 수행하던 중에 불의의 구제역 사태를 맞아 당분간은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금년초부터 시작한 돼지 콜레라 근절정책을 성공리에 완수하지 못하면 2000년 이후는 아무리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독일, 네델란드,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돼지콜레라가 만연하여 이미 400여만 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는 일체 돈육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의 내일을 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돼지 콜레라가 상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단시일내에 이 병을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양돈인 전체가 이 고질병을 퇴치한다는 목표아래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한다면 이 병의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병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 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독예방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야외 감염된 돼지를 지속적으로 색출·도태함으로써 양돈인의 소망인 돼지 콜레라 박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금년부터 이러한 돼지 콜레라 근절대책이 농림부 방역당국과 양돈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합의하에 실시되고 있으므로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 콜레라 근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돼지 콜레라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절대책 실시에 즈음하여 제작 배포한 홍보물에 있는 근절대책 요령에 따라 솔선수범하여 이 땅에서 돼지 콜레라의 발생을 종식시키는 위업을 꼭 이루도록 우리 모두 같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시다.